

4

2016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 양양소식

Vol. 252





4월에는 남대천 송이조각공원에 벚꽃이 만개해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도 봄이면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남대천 벚나무.  
 내년에도 활짝 피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벚꽃처럼 우리네 일상도 활짝 피어나길, 5월에는 가족들과 함께  
 활짝 웃는 날이 많기를 바랍니다.

# 양양소식

Vol. 252

CONTENTS

## 희망양양

- 04 테마스토리 귀농귀촌 1번지 양양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다
- 06 야양사람 양양전통시장 터줏대감, '오뚜기식당'의 '김정자' 할머니
- 08 양양 600년 ④ 오색령

## 의기양양

- 10 양양은 지금 SNS를 통해 양양 이야기, 양양의 멋과 맛을 전합니다
- 12 이달의 군정소식
- 16 양양의 이모저모
- 18 의정소식 군정 주요현안 의원간담회

## 오감양양

- 19 추억의 사진 1986년 양양시장
- 20 맛 칼럼 오색 산채 1편
- 21 장보러가자니 양양전통시장 토요일화제
- 22 오랍드리 양양 곤충생태관

## 여린양양

- 24 정보꾸러미 알아두면 도움되는 생활정보
- 25 일자리정보 4월 추천 일자리
-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제4회 바다식목일 행사

### COVER STORY



양양 남대천 벚꽃길  
 봄소풍 나온 어린이들



양양소식 · 252호

| 발행일 2016년 4월 2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yangyangesm@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 귀농귀촌1번지 양양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어촌은 더욱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양양군도 농촌지역에 도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심을 떠나 제2의 인생을 살고자 양양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귀농귀촌 1번지로 거듭나고 있는 양양의 미래가 밝다.

귀농과 귀촌,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때 귀농이라 하고, 귀촌은 농업이외에 다른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전원생활을 위해서 농촌에 정착하는 것을 귀촌이라고 분류한다.

최근에는 서핑 등 해양레포츠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양양군답게 현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레포츠 산업에 종사하

기 위해 정착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양양군은 2010년부터 꾸준히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지금까지 211가구 430명이 양양군에 이주했다. 이는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귀농귀촌 교육과 귀농상담을 통해서 이주한 실적이고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귀농귀촌 인구는 더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 귀농귀촌의 최적지, 양양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의 정착지로 양양을 선택하는 이유 중 무엇보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으뜸으로 손꼽힌다. 산과 계곡, 바다 등 자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어 귀농귀촌 인구가 선호하는 지역이다. 또 해양성 기후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 기후적 조건도 좋다.

오는 2017년 서울~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1시간대로 단축돼 앞으로 도시민들의 선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양양 하조대 인근에 조성되는 중광정리 전원마을 입주 희망자가 대거 몰려 양양군이 귀농귀촌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 나게 했다.

양양에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양양군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들 때문이다. 양양군은 귀



농귀촌 지원센터의 상시 운영과 함께 2011년부터 열고 있는 귀농귀촌 아카데미교육을 통해서 귀농귀촌을 위한 정보와 교육으로 안정적인 양양 정착을 돕고 있다.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이들과 원활한 소통과 관계를 위해 양양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 환영풍토 조성 매니저 양성교육>도 빛을 발하고 있다.



귀농인의 집 외경



귀농인의 집 침실



귀농인의 집 주방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에 정착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들과의 융화와 정서적 갈등 문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양군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양에 이주해 오는 도시민들을 배척하지 않게 사전교육을 하고 있다. 도시민과 농촌주민들의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는 대화법 교

육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 낸다.

또 귀농귀촌 멘토링 클럽 운영으로 일방적인 교육 환경을 벗어나 먼저 정착한 선배 귀농귀촌 주민들과의 만남과 의사소통으로 좀 더 원활한 귀농귀촌 정착을 돕고 있다.

## 몸으로 부딪히는 농촌 생활, 현장실습으로 적응력 높여

양양군은 보다 실질적인 농촌 생활 적응을 위해서,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귀농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모범적인 선도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작목별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농가에 가서 일대일 영농실습교육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인 셈이다. 지난 4월 화창한 봄날, 최상열씨가 운영하는 표고버섯농가에서는 귀농인 박종식씨가 부지런히 표고버섯 재배법을 배우고 있었다. 최상열씨 또한 2014년, 양양으로 이주한 3년 차 귀농인으로 표고버섯농사에 성공적으로 안착 중이다. 그리고 그 성과를 후배 귀농인에게 아낌없이 주고 있다.



## '귀농인의 집에서 미리 농촌체험하고 귀농 준비하세요

올해 달라진 지원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 4월부터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이다.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마을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빈집을 수리해 귀농인들이 1~3개월간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했다. 양양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귀농인의 집에 입주하면 월 15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에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부담하면 된다. 3천만 원을 들여 도시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깔끔하게 리모델링한 귀농인의 집은 주택 규모 71.5㎡에, 경작이 가능한 347㎡의 텃밭도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잠시나마 귀농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귀농인의 집에 머물면서 양양지역의 귀농귀촌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에서 귀농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양군은 제2의 인생을 위해 찾아오는 이들에게 희망의 땅이 되고 있다. 귀농귀촌의 1번지로 도약하는 양양군의 미래가 더욱 밝다.



<양양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welcomeyangyang.go.kr](http://www.welcomeyangyang.go.kr)  
문의전화 : 033-670-2863



## 엄마 밥 먹고 오뎅이처럼 일어서야지

### 양양전통시장 터줏대감, '오뚜기식당'의 '김정자' 할머니

봄날이면 참았던 숨 터지듯 여기저기 꽃이 피고, 새순이 돋는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길이 저절로 꽃으로, 새싹으로, 봄으로 향한다. 꽃과 새싹을 틔워 낸 봄의 활력을 읊어오고 싶은 까닭이다. 최근 양양전통시장도 봄을 맞아 활력을 띠기 시작했다. '양양토요시장'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계절별 이벤트를 제공하고,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고자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시장 상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양양전통시장 터줏대감인 '오뚜기식당'의 김정자 할머니에게 시장은 평생직장이자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넘어 온 친구 같은 존재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장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 한 가족을 든든히 지켜준 삶의 터전, 시장 속 식당



4인용 테이블이 3개, 앉은 자리에서 주방이 바로 보일 정도로 '오뚜기식당'은 아담하다. 걸치레 하나 없이 소박한 풍경이지만 뭔가 제대로 된 음식을 선보일 것 같은 고수의 느낌이랄까? 김정자 할머니(75세)는 40여 년 전 양양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잠시 쉬게 되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금의 식당 자리에서 장난감을 팔면서 상인의 길로 들어섰다. 건강을 회복한 남편이 일을 다시 시작하였지만 할머니는 장사를 놓지 않고 장난감 도매업, 풀빵장사 등을 거쳐 지금의 '오뚜기식당'을 열었다.

식당 이름은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이 직접 지은 것이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오뎅이'처럼 일어서라는 의미라고. 슬하에 4남매를 남부러울 것 없이 키우고 뒷바라지하기 위해 30여 년 동안 그 힘든 식당 일을 묵묵히 해낸 김정자 할머니. 지금은 다리가 아파 자꾸 앉아서 쉬게 된다면서도 손님들이 오면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는 할머니는 정말 오뎅이를 꼭 닮았다. 3년 전부터는 큰 아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에 종사했던 아들은 가업을 물려받겠다는 거창한 목표보다 가족의 생활에 버팀목이 되어 주고, 많은 이의 추억이 서린 식당을 가능한 오랫동안 이어가고자 한다.

### 엄마의 마음으로 한 그릇이라도 정성스럽게

'오뚜기식당'의 메뉴는 감자옹심이, 칼국수, 만둣국, 감자전, 팔죽 등 하나같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다. 하지만 재료 손질부터 요리까지 할머니가 거의 도맡아 한다. 내 자식들에게 먹인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아끼지 않는 것이 김정자 할머니의 철학이다. 그래서인지 오뚜기식당의 음식에서는 익숙한 엄마의 손맛이 난다. 정성뿐만 아니라 양도 꽤 푸짐하다. 2014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오뚜기식당은 손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오뚜기식당은 '한 그릇 식당'으로도 불린다. 혼자 와서 한 그릇만 시켜도 눈치 보지 않고 부담 없이 먹고 갈 수 있기 때문이란단다.

### 오랜 시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

오뚜기식당에는 개업부터 한자리를 지켜 온 오래된 쟁반이 있다. 닳아서 바닥에 구멍이 송송 뚫린 쟁반은 실 틈 없이 일만 해 온 할머니의 역사가 속속들이 녹아 있는 듯하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할머니는 양양전통시장의 터줏대감다운 조언을 전했다.

시장에는 단정한 마트나 세련된 백화점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의 온기가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탈함이 있고, 내 안에서 소멸되고 있는 생의 활력이 있다. 시장 한 바퀴 돌고나면 빈손을 채우듯 마음까지 그 활력이 쭉쭉 배어드는 기분이다. 그 힘으로 힘든 일상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오뎅이처럼. 우리 전통시장이 건재해야하는 이유기도 하다.



"장사를 하면서 가장 신날 때는 역시 손님들이 많이 찾아줄 때지. 길에서 사람들이 '오뚜기 식당에 갈까?'하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더라고. 잊지 않고 오랫동안 찾아주는 손님들이 참 고마워. 장난감을 팔 때 찾아 준 손님들이 식당까지 계속 찾아오고 있으니까." 김정자 할머니에게 손님은 그저 고맙고 반가운 이름이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단골손님들이 오면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면서 안부를 묻는다. 할머니의 푸근한 인심 덕분에 작은 식당은 더 넉넉하게 보인다.



“ 시장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했다가 금방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 그때마다 조금 더 열심히 해봐라, 참고 계속 하라고 타이르기도 하지. 여기서 장사 열심히 해서 물건도 많이 팔고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 ”

양양 600년 | ④ 오색령



# 지금의 한계령은 옛 오색령이다

양양문화원은 지난 2010년도 『양양군지(襄陽郡誌)』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오색령이 한계령으로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되어, 그동안 오색령의 실체를 바로 찾기 위해서 고문헌(古文獻)·고지지(古地誌)·고지도(古地圖)를 토대로 조사해왔다. 그 결과 조선 선조 이후 지금까지 오색령으로 사용 표기되어 왔으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한국근대지도에 한계령으로 왜곡 표기한 것이 시초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조상대대로 지켜온 역사,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자연문화유산일 뿐 아니라 자자손손 길이길이 대물림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 고장의 영동과 영서를 잇는 주요 관문인 오색령에 대하여 양양 정명 600주년을 맞이하여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오색령(五色嶺) :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인제군 북면 한계리를 잇는 해발 920M의 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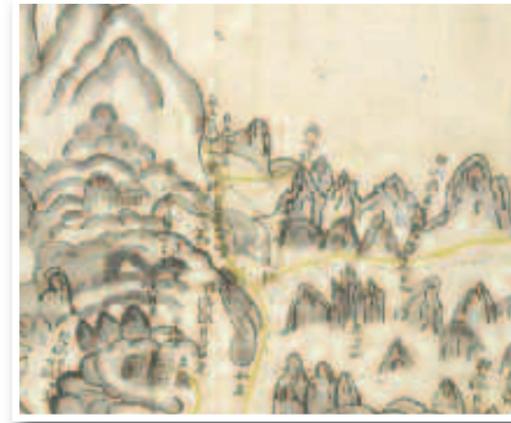
## 오색령 명칭의 효시(嚆矢)

역사적으로 영(嶺)의 기능은 귀향(歸鄉)보다는 상경(上京)하는데 있다. 오색령의 효시는 소솔령(所率嶺)이다. 추강 남효온(생육신의 한사람)은 조선 성종 16년(1485)에 유금강산기 서두에 “설악산 그 남쪽에 소솔령이 있다”고 했고,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한 팔곡 구사맹은 선조 22년(1589)에 한계산(寒溪山)시(詩) 주석(註釋)에 “양양에서 소솔령을 넘었다”는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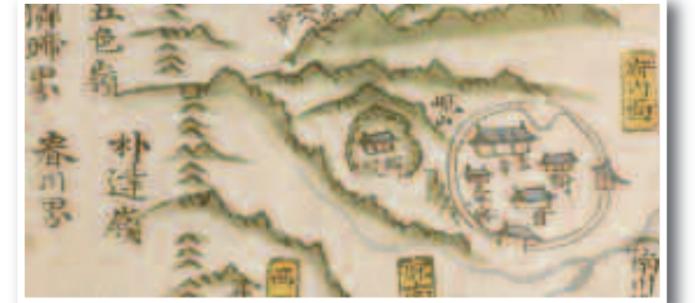
오색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선조 29년(1596) 2월 1일에 비변사의 기록이 최초이며,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오색령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그에 관련 사료로는 고문헌(古文獻) 16건, 고지지(故地誌) 5건, 고지도(古地圖) 29건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 조선총독부는 한계령과 오색령 명칭을 병행 사용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오색령 지명 사용은 양면성이 있었다. 조선지자료(1914 이전), 조선총독부발행지도(1915), 인제군세일반(1930) 등에는 한계령으로 표기되어 있고, 같은 시기에 발행한 조선총독부관보(1913)에는 오색령으로 표기되었다. 그 외 개벽(1923), 동아일보(1932), 매일신보(1923) 등의 기사에 오색령 명칭을 사용하였다. 특히 동아일보기사(1932년 3월 15일)에는 인제군 북면 800여명의 주민들이 북면 원통리를 중심으로 오색령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인제군과 강원도에 진정서를 제기하였다는 기사가 실려 있어 현재의 한계령 위치가 옛 오색령임을 입증하고 있다.



1872년 지방도 (양양부지도)



1736년~1767년 여지도 (양양부)



일제강점기 한국근대지자료

##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왜곡된 지명인 한계령이 오색령으로 복원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1950년 6·25 한국전쟁을 맞게 된다. 당시 미(美) 군사지도 제작 시 일본총독부의 지도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국방부)에서 지도를 제작할 때 1950년대 미 군사지도를 참작하여 한계령 지명은 지속 사용되었다. 일제가 왜곡한 한계령 지명은 일제의 창지개명 사례로서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색석(五色石)이 있다고 유래되어 붙여진 아름다운 오색령은 기암절벽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올해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71년이 되는 해이다. 아직도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왜곡된 지명을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애국충절의 고장답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이다. 광복이 된 후 일본식 이름을 버리고 본래 이름을 되찾았듯이 일제강점기에 창지개명된 한계령 명칭을 우리 고유지명인 오색령으로 바로 고쳐서 후손에 물려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 SNS를 통해 양양 이야기, 양양의 멋과 맛을 전합니다

양양군 공식 SNS 홍보 기자단 구성·위촉

10명으로 구성, 다양한 분야에서 양양의 이모저모 홍보

우리군이 급속히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역의 구석구석 다양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기 위하여 SNS 홍보기자단을 본격 운영한다.

양양지역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할 '양양군 SNS 홍보기자단'은 지난 4월 15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기자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참여자를 공개 모집, 1차 SNS 활동 경력평가, 2차 콘텐츠 작성능력 평가를 거쳐 최종 10인의 기자단을 엄선했다.

최종 선정된 기자단에는 양희은의 대표곡 '한계령'을 작사한 정덕수 시인을 비롯해 브랜드마케팅 전문가, 귀농인, 퇴직공무원 등 30대부터 60대까지의 각계각층 인사가 포함되어 다양한 시각에서 양양지역의 아름다움과 현장감 넘치는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기 양양군 SNS 기자단'은 위촉장 수여일로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 동안 운영되며, 활동기간 동안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양양군의 관광,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생산·공유함으로써, 군정과 대중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 기자단 활동의욕 북돋우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기자단에게는 활동실적에 따라 월 1만원 부터 15만원까지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반기별 우수기자로 선정이 되면 전통 시장 상품권 등 소정의 인센티브와 함께 연말 군수표창에 추천되는 등 활동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혜택이 주어질 방침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위촉식 자리에서 "24시간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현실에서 SNS를 통한 참여와 소통, 홍보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다"며, "양양군을 대표하는 명예군수라는 마음가짐으로 지역 알리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군은 SNS 홍보기자단 운영과 함께 실과소별로 1명 이상의 홍보 담당자(일명 '군정소식 알리미')를 지정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 공고사항 등을 SNS를 통해 신속하게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 양양군 SNS채널 찾아오시는 방법!

블로그 <http://blog.naver.com/likeyyang>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ikeyyangyang>

카카오톡 <https://story.kakao.com/ch/likeyyang>



### 자치·지역개발

#### 야영장 등록규제 실타래 풀어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에 따른 결실 18개소 야영장 추가 등록 가능



우리군이 지난해부터 지역특화 규제개선 사항으로 '야영장 등록 제도 개선'에 집중한 결과, 야영장 등록규제 실타래를 풀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군은 2015년부터 시행된 야영장 등록제도에 대하여 야영장 업주와 이용객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과잉규제라고 판단,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야영장의 등록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야영장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지난해 6월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정부 건의서에 야영장 등록제도 개선 안건을 최초로 건의하였으며 특히 지역에 소재한 상당수 야영장이 현행법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보전관리 지역에서도 야영장 행위를 허용할 것과 농지법 및 산지법을 위반한 야영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원상복구 명령보다는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원상복구 없이 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2016년 3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법이 줄줄이 개정되면서 '야영장 시설'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군에서 건의한 대로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 등에서도 시설 등록이 가능해 그동안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던 야영장 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전체 등록대상 야영장 34개소 가운데 6개소만 등록하는 등 18%의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약 18개 야영장이 추가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문의 : 자치행정과 규제개혁담당 033)670-2951

####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생활 및 문화경제 거점지 기능 강화 상평교 접속도로 개선 등



우리군이 서면 지역의 중심권역을 생활 및 문화경제 거점지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최근 강원도 협의를 마치고 4월 11일자로 고시했다.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5억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면 중심권역인 수상리와 상평리 일원에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후되고 폭이 좁아 사고위험과 교통불편이 상존했던 상평교 접속도로를 개선하고, 서면 주민들의 문화와 여가 선용,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서면주민복지상생센터(구 서면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 누수, 노후 등 환경이 열악한 서면 게이트볼장을 리모델링해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민민 체육대회 행사장 등으로 활용하고, 악취 및 병해충 발생 우려가 있었던 하수도 시설 개선과 수상리·상평리 마을회관 리모델링도 함께 추진한다.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실내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상평리에 100㎡의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조성하고, 100㎡ 규모의 족구장도 신규로 조성해 청장년층을 여가활동과 교류를 증진할 계획이다. 오는 상반기중 시행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부터 리모델링 등 건축공사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림복지과 기반조성담당 033)670-2764

#### 정암해변을 숲과 그늘이 있는 아름다운 해안으로 만들어가요

해안가 빈지·나지에 내염성 강한 해송 등 경관림 식재



우리군이 연안침식을 방지하고 숲과 그늘이 있는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강현면 정암해변 일대에 해안림·해안사구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암해변은 매년 반복된 해안침식으로 백사장 유실이 잦은 지역으로 해안 경관림이 일부 조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은 수량과 수형불량 등으로 방풍 및 비사방지 효과가 극히 저조했다.

또 지난해 철거된 정암소초(군부대 해안경계소초) 자리가 공터로 남아 있어 경관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군은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정암해변 일대 빈지·나지로 방치된 지역에 주변환경과 생태여건에 적합한 해안림을 집단 식재해 녹색경관을 조성하고, 해풍·해일 피해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방풍 및 비산모래 이동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교목과 관목을 교차 식재하기로 했으며, 조경석, 지주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 해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중 시공업체를 선정, 착공에 들어가 5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정암해변 인접 국도변에 친환경 줄음쉼터를 조성하기로 해 이 일대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친환경 연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해양수산과 어업진흥담당 033)670-2742

#### 낙산해변 공원편의시설 확충 해변 백사장 경관조명 설치

해변 300m 경관조명거리 조성, 주차장·화장실 등 기반시설 개선



우리군이 최근 광장 주차장 정비사업과 낙산사 입구 화장실 신축사업을 마무리하고 해변 백사장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낙산 주청리 광장주차장은 기존 확일화된 주차라인을 제거하고, 수고가 낮은 적단풍 등 조경수를 식재해 경관을 크게 개선했으며, 경관형 가로등 14개를 설치해 야간 시인성 부족 등 취약점을 보완했다.

대형버스를 비롯해 사계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낙산입구 대형주차장에는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50㎡의 한옥형 공중화장실이 신축했다.

이와 함께 낙산 밤바다를 추억과 낭만의 장소로 변화시킬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4천만원의 예산으로 낙산디자인거리 앞 해변산책로 150m 구간에 아치형 조명을 설치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인근 도로 150m 구간에는 도로변 소나무를 비취줄 녹색조명의 투광등을 설치하는 등 야간 경관조명을 통해 낙산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5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 피서철 손님맞이와 해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개발담당 033)670-2966

### 농수축산

#### '양양 해뜨미(米)' · '수라상 낙산배' 포장재 디자인 교체

표고 · 느타리, 절임배추, 복숭아 등 소포장재 제작에 2억 4천만원 투자



우리군이 대표 농산물인 '양양 해뜨미(米)'와 '양양 수라상 낙산배'의 포장 디자인을 변경·확정했다. 해뜨미와 낙산배 포장재의 경우 디자인 등이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농산물 유통환경 및 최근 소비 트렌드 부응하지 못하고, 우수한 품질을 포장재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1,5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 디자인업체에 의뢰했으며, 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근 '양양 해뜨미(米)'와 '양양 수라상 낙산배' 포장디자인을 최종 확정했다.

'양양 해뜨미(米)' 포장재는 '따스한 햇살 한 줌, 청명한 해풍 솔솔, 건강한 흙 한 줌에 농부의 땀 한 방울 더한 쌀'이라는 카피를 넣어 청정한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양양 수라상 낙산배' 포장재는 황금색을 사용해 임금님께 진상하던 고품격 이미지를 특히 강조했다.

두 포장재 모두 양양군 도시브랜드인 '고맙대 양양'을 활용해 통합브랜드로써 지역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2억4천만원을 투입해 느타리버섯, 절임배추, 낙산배, 복숭아, 표고, 벌꿀, 감자, 옥수수, 계란, 한과 등 청정 농특산물 30개 품목에 대하여 22만개의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해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문의 :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담당 033)670-2703

### 문화관광

#### 양양연극단 '행복한 시작' 강원도 군 단위 최초 강원연극제 참가

4월 6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관객 200여명 호평, 박수 갈채



양양 연극단 '행복한 시작'이 지난 4월 4일부터 11일까지 횡성군에서 개최된 '제33회 강원연극제'에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참가했다.

창작 연극 '미시리'는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풍자극으로 배우 13명과 스태프 5명 등 총 18명이 참여했다.

지난 4월 6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미시리 공연에 참석한 200여명의 관객들은 연극 전반에 흐르는 춤사위와 노래를 함께하면서 배우들과 혼연일체가 되었으며 공연 후에는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다.

극단 '행복한 시작'은 지난 2012년 양양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 연극반 강의를 하던 극작가 겸 연출가인 이상준 작가가 2년간 연극반 강의를 들던 수료생들과 함께 2013년 창단한 극단이다.

양양의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한 '양양패지나', '조화벽전', '팔씨름', '하오마오' 등 총 9편의 창작연극을 공연했으며, 현산문화제, 양양송이축제 등 지역축제를 비롯해 초·중·고교와 소외지역 등을 찾아 100회 이상 공연을 해특히 최근에는 특히 최근에는 연극에 뜻이 있는 양양고·양양여고 학생 5명이 가입해 연습을 함께 하면서 이번 공연에도 4명이 참가해 기량을 선보이는 등 연극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의 : 양양문화원 사무국 033)671-8762

#### 연어축제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육성 축제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추진

시대 변화와 방문객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우리군이 '양양연어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군은 국내로 회귀하는 연어 중 70% 이상이 양양 남대천으로 회귀한다는 지역 특수성을 기반으로 지난 1997년부터 매년 연어축제를 개최해 왔지만, 축제프로그램 측면에서 변화와 발전이 정체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양양연어축제의 킬러콘텐츠로 자리매김 한 연어맨손잡이체험에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체험객과 비체험객 간 만족도 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맨손잡이 체험에 버금가는 제2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축제전문 컨설팅회사 위탁을 통해 '양양연어축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문화와 축제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오늘날 관광축제의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 공연, 전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시대 변화와 방문객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양양연어축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 033)670-2723

## 사진으로 보는 4월 양양의 이모저모



### 양양군축구연합회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2016 양양군축구연합회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가 4월 3일 양양공항 구장과 보조구장에서 열렸다.



### 인재육성에 힘을 보태요

우리군 운전직공무원들은 향토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개인별로 지급되는 당직비와 월 회비 등을 모아 4월 4일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20만원을 기탁했다.



### 더불어 하나돼요, 제36회 양양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들의 화합의 장 마련과 비장애인과 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9일 양양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7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축하공연과 체육행사가 펼쳐졌다.



### 연어야, 양양에서 다시 만나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3월 29일 양양 남대천에서 400만 마리의 어린 연어 방류행사를 가졌다. 행사 참여자들은 성장한 어린연어들이 태어난 고향 남대천으로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했다.



### 청소년들의 쉼터, 책놀이공간 '따띠'가 문을 열었어요

무산복지재단이 책놀이공간 '따띠'를 조성해 4월 1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은 영화와 공연 관람, 독서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



### 나만의 낙산배나무 한그루가 생겼어요

임금에게 진상되었던 낙산배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로 13회째 주말농장 형태의 낙산배 1그루 분양을 하고 있다. 4월 12일에는 내 배나무 명패달기 체험행사가 140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 모든 군민이 컴퓨터와 친해지도록 교육해드려요

우리군은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군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7차에 걸쳐 주·야간반 교육을 운영하며, 현재 진행중인 2차과정에서 60여명의 주민들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강중이다.



### 귀농귀촌, 양양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세요

우리군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귀농귀촌인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비 귀농인과 귀촌인들의 현지 적응력 향상을 위해 4회에 걸쳐 귀농귀촌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다.



### 강원도 합기도인 양양으로 총출동

4월 9일과 10일 이틀동안 양양군 실내체육관에서 제14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합기도대회가 열렸다.

## 사진으로 보는 4월 양양의 이모저모



### 양양군공도협회에서 명궁이 탄생했어요

양양군공도협회 소속 문재철 공사(43세)가 4월 10일 국궁 5단 승단시험에 합격해 국궁의 반열에 올랐다. 1976년 양양군공도협회가 창설된 이후 40년 역사상 첫 명궁 탄생이다.



###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됐어요

강현면 김광섭 농가에서 4월 22일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하루 앞당겨진 것으로 9월 초순 벼 수확이 예상된다.



### 양양전통시장에 휴게·공연 공간이 생겨요

양양전통시장에 휴게·공연 공간을 조성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4월 19일 개최됐다. 군은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시장 광장을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지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양양군의회

## 군정 주요현안 의원간담회

### 매호(梅湖) 생태복원사업 추진상황 청취



양양군의회(의장 최흥규)는 지난 4월 18일 군정 주요현안인 매호생태복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의원간담회를 실시했다. 매호 생태복원사업은 7번 국도 건설 및 농경지 확충 등으로 원형훼손이 심각해진 매호를 석호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과 인간과의 친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현남면 매호 일원(광진리, 남애리, 전포매리 일원)에 총 76억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담당부서인 환경관리과의 매호 생태복원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진행현황을 청취하고,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 연차별 투자계획 등 세부사업내용을 점검했다.

**이영자 부의장**은 지역 특색이 드러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습지 내 수변식물 등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식물로 식재할 것을 제안했다. **오한석 의원**은 국도에서 매호까지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으며, **이기용 의원**은 데크 설치시 백로, 왜가리 서식지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중 의원**은 사업의 목적은 생태복원인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것과 국도에서 용이하게 진입하도록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진중호 의원**은 향후 매호 운영방안과 모니터링 사업내용 등을 점검했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Tel.033-670-2801



### 1986년 양양시장의 모습입니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절로 실감이 납니다. 분명 건물은 그대로인데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상가도 빼곡하게 들어섰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를 설치했으며, 먼지가 날리지 않게 바닥도 말끔하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30여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의 넉넉한 인심과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의 구수한 흥정소리, 계절에 맞춰 나오는 산나물과 제철과일, 장날이면 여전히 북적대는 사람들... 100년이 지나도 변치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4월 마지막 주말(4.30~5.01) 양양장터에서 산나물축제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지인, 가족과 함께 시장을 찾아 봄내음에 흠뻑 취해보시는 건 또 어떨런지요!





## 오색 산채마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 오색 산채<1>

“가라피의 어둠은 짐승 같아서/  
외딴 곳에서 마주치면 서로 놀라기도 하고 ...  
이곳에서는 어둠을 웃처럼 입고 다녔으므로 /  
나도 나를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  
밤마다 어둠이 더운 고기를 삼키듯 나를 삼키면 /  
그 큰 짐승 안에서 캄캄한 무지를 꿈꾸거나 /  
내 속에 차오르는 어둠으로 /  
가라피를 날아다니고는 했다”  
애초 군사용 도로로 1959년 착공을 시작해 1963년에 비포장으로 오색령(한계령)이 뚫리기 전만 해도, 오색리는 양양 출신 이상국 시인이 기억하는 <가라피의 밤> 그대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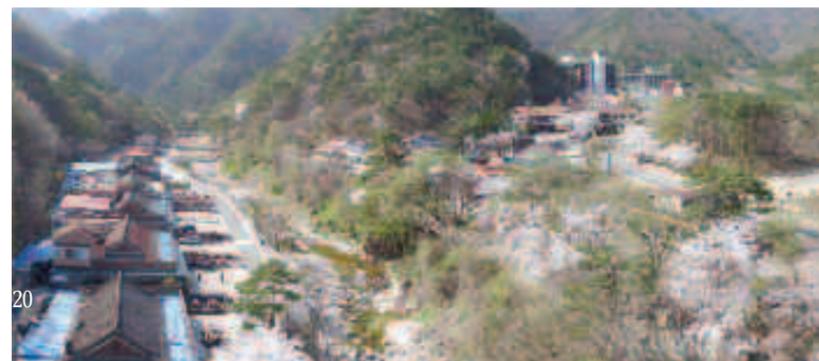
### 궁벽지 속에 갇힌 '산중의 무인도' 오색리

<가라피의 밤>처럼 오색리는 어디에서든 접근하기 힘들었던 첩첩산중 산간 오지마을이었다. 양양에서 오색을 지나 인제, 원통, 흥천, 서울로 통하는 큰 길이었던 오색령은 523년 전인 조선조 성종 24년에도 있었다. 하지만 셋길(세길)이 너무 험하고 좁아서 위험하다 하여 통행 금지령을 내려 폐쇄하고, 지금의 미시령으로 다니길 권유했다. 그러다가 다시 길을 열어 관로(官路)로 이용하였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간성군 편>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색리는 겹쳐지고 포개진 지세가 험한 궁벽지 같은 산맥에 웅크려 있던 마을이었다. 1971년에는 버스도 다닐 만큼 도로가 포장 되었어도 인제군 한계리에서 오색령 정상까지 오르는데 1시간, 오색리를 거쳐 낙산사까지 또 1시간이 소요되어 양양에서 서울을 오가는 데 꼬박 6시간 가까이 걸렸으니, 오색리를 오간다는 것은 험악한 짐승의 아가리 속을 드나드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었다. 이 탓에 주민들의 삶도 녹녹치 않아 보잘 것 없이 궁색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양씨와 박씨들의 집성촌이었던 오색리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평지도 변변치 않아 논농사, 밭농사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이들은 산나물과 약초를 뜯거나, 선창으로 사냥을 하고, 산중에 불을 질러 화전을 일궈서 옥수



### 오색리 첫 식당은 홍포수의 '대구집'

수나 감자를 심어 가난한 생계를 잇고 있었다. 1970년 3월에 오색리 일대가 국립공원 설악산지구로 지정되면서 관광객들이 하나 둘 찾아들기 시작할 때까지, 오색리는 이렇게 바다 한 가운데 고립되어 누구도 선뜻 찾아갈 수 없는 '산중의 무인도' 같은 마을이었다. 이렇듯 산간 궁벽지에 고립되었던 오색리가 하루아침에 벼슬 자리에 오르듯, 전국에서 몰려들기 시작하는 관광객들로 분주해지기 시작한 것은 오색리가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개발 계획에 포함되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식당도 구멍가게도 없었던 터라 밥 한 끼, 사이다 한 병, 담배 한 갑도 살 수 없었던 관광객들은 온천욕을 즐기고 오색약수로 목을 축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즈음 오색리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전방(塵房)'과 식당 형태를 갖춘 '대구집'이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다. 오색마을에 첫 구멍가게와 식당이 생긴 것이다. 약수터 바로 앞에 자리 잡은 대구집은 둥글둥글한 호박돌로 3m 정도 높이의 축대를 쌓고, 허슬허슬하게 짜 맞춘 나무 구조에 시멘트를 치대어 벽을 세우고 기와를 올린 형태였다. 각종 필름판매, 카메라 대여, 타올, 기념품, 과자, 술을 파는 전방과, 토종꿀과 간단한 음식을 파는 토산물 센터 간판을 달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오색리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식당 영업을 시작한 장본인은 오색리 주민 홍창해씨의 부친 홍재호(1987년 작고) 씨로 당시에는 '홍포수'로 더 알려진 전직 공무원 출신이었다. 고향인 대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심심치 않게 이곳 오색리까지 사냥총을 들고, 카메라를 메고 들어와 마을 청년들을 물이꾼으로 앞세워 멧돼지, 곰, 산양 등을 잡는 사냥을 취미로 즐기던 사람이었다. 이때 팔았던 음식이 '약수백반'이었다.



양양소식지 5월호에는 오색 산채 2편 <첫 산채식당과 음식은 홍포수의 대구집과 약수백반>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황영철  
강원도외식저널 대표



## 토요시장에서 장보고 영화보고

### 양양전통시장 토요일영화제



두 번째 해를 맞은 의기양양 전통시장 토요일영화제가 4월 30일부터 문을 엽니다. 토요일영화제는 우리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토요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해 5월 처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2, 4째 주 토요일 저녁이면 시장 아케이드 안(현대건어물 앞)에 야외용 좌석이 펼쳐지고, 현장 한 칸에서는 관람객에게 나눠줄 팝콘 냄새가 구수하게 풍깁니다. 영화 관람료는 얼마나 구요? 영화도 팝콘도 모두 무료입니다. 상영하는 영화는 최신영화 중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다고 하네요. 날씨가 추운 날은 영화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시장사업단에서 무릎담요를 나눠주고, 난로도 피워주는 VVIP(극소수 상류층 고객) 대우를 해드립니다.

지난 해 토요일영화제가 시작된 후 영화가 한 편 한 편 거듭될수록 토요일영화제 매니아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분들이 나중에 영화가 끝나면 의자정리도 같이 하는 영화관계자로 변하셨다는 후문이 있네요.

가게를 비울 수 없어 물건을 팔면서 가게 앞에 의자를 놓고 영화를 보시는 시장상가 사장님, 고생한다고 커피를 타 주시는 상인들, 상가주택에 살면서 아내와 함께 영화데이트 하는 남편, 영화상영 소리에 궁금해 내려오신 할아버님 등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토요일영화제의 고객입니다.

4월 30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올해의 토요일영화제가 기다려집니다. 영화 같이 보실래요?

**| 2016년 토요일영화제 관람 안내**

- 시 간 :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저녁 7시  
(올해는 4월 30일부터 시작)
- 장 소 : 양양전통시장 아케이드 안
- 상영 영화는 양양군 홈페이지(www.yangyang.go.kr) 공지사항에 사전안내  
※ 관람료 무료, 관람객 무료팝콘 제공





## 신비한 곤충의 세계로 여행오세요 양양 곤충생태관

살아있는 곤충과 1,200여종의 표본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곳.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작은 천국이 되는 곳.  
여행객을 위한 관광안내센터와 휴게실, 포토존을 갖춘  
양양 곤충생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곤충생태관 건물 1층은 양양군 종합관광안내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는 관광안내 뿐만 아니라 휴게시설, 양양8경 사진 무료 전시실, 포토존, 물품보관함까지 여행객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휴대폰에 셀카는 넘쳐나는데 변변한 가족사진 하나 없는 분들은 여기 포토존에서 기념사진 한 장 남겨보시길 바란다. 또한 근처의 대표 관광지인 낙산사와 낙산해수욕장을 여행하는 분이라면 잠시 이곳 물품보관함에 짐을 맡겨 놓고 훌가분히 다니는 것도 좋겠다.

이제 2층 곤충생태관으로 입장해볼까?

입장료는 어른 1,000원, 만 6세 이상의 아이는 700원이다. 과자 한 봉지 값도 안되는 착한 요금이다. 양양 곤충생태관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곤충과 물고기, 그리고 1,200여종의 곤충 표본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코끼리장수풍뎅이, 오각뿔장수풍뎅이 등 희귀한

곤충부터 기가스대벌레, 그란디스메뚜기 같은 대형 곤충,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수집한 형형색색의 나비들은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만히 있는 물체보다 움직이는 것에 훨씬 집중하는 아이들에게 곤충은 참 재미있는 장난감이 된다. 어른들이 징그럽게 볼 수도 있는 장수풍뎅이나 거미, 알과 애벌레들을 아이들은 꼼짝도 않고 서서 한참동안 관찰한다.

작은 알에서 어른벌레로 탈바꿈하는 곤충의 성장과정은 사람 인생의 축소판 같아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몰클함을 느낀다. 양양 곤충생태관은 살아있는 물고기와 곤충도 전시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생물체의 생태환경 유지를 위해 관리자들이 쏟는 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음에도 현재의 전시 종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를 사는 아이들은 흠 놀이를 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훨씬 많다. 콘크리트 건물과 보도블럭에 둘러싸여 생활하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흠을 밟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게 되어버렸다.

나비를 잡고, 메뚜기를 구워먹던 추억을 간직한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그 추억을 되물림 하기가 어려워졌다. 양양 곤충생태관에 오면 이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린 나비, 장수풍뎅이, 물방개, 사마귀 같은 곤충류의 성장과정을 아이의 손을 잡고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양양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참 고마운 생태교육장이다.

한 가지 팁! 곤충생태관에서는 나무 곤충 만들기, 나무 곤충 퍼즐 만들기 같은 목공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목공품로 직접 나무조각들을 이어붙여야 완성되는 이 기념품은 아이들에게 인기만점이다. 곤충생태관 관람을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1층 휴게실에서 기념품을 함께 완성해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저렴한 비용으로 추억을 쌓는 하나의 방법이다.



### 양양 곤충생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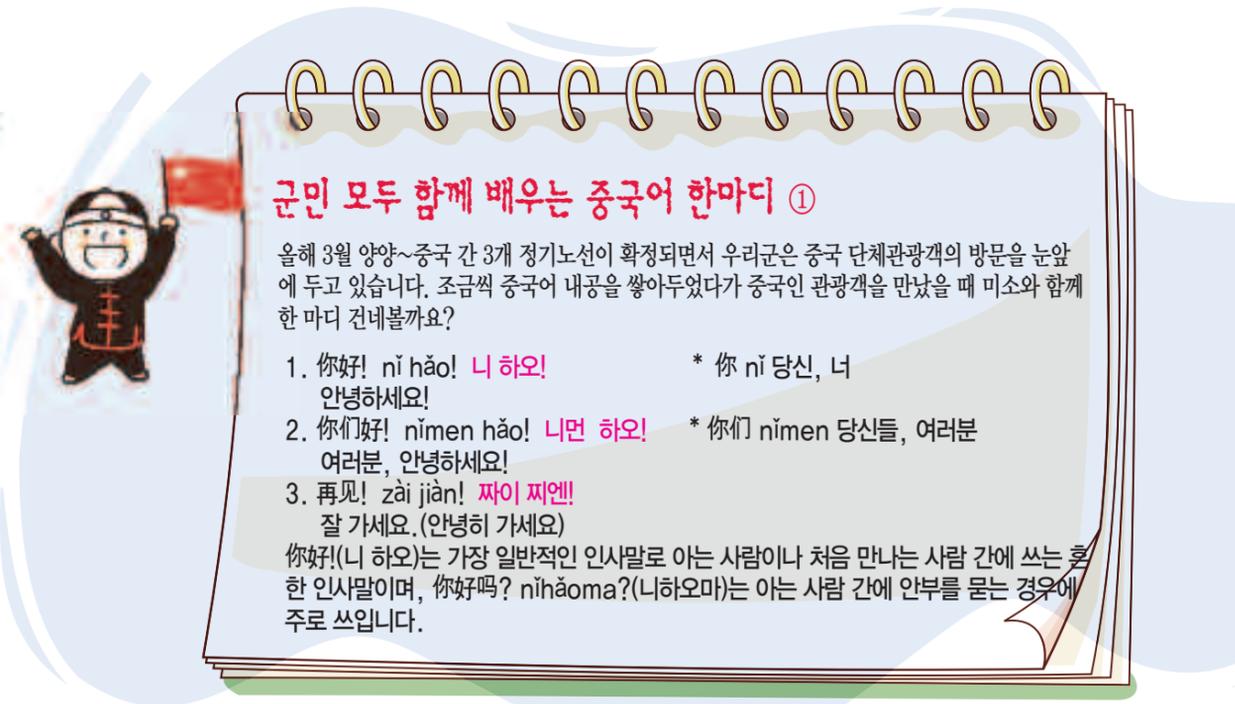
위 치 :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094

입장시간 :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연중무휴

※ 5시 30분 입장 마감

입 장 료 : 성인 1,000원(단체 800원), 소인 700원(단체 500원)

문 의 : 곤충생태관 ☎033-670-2329



### 근민 모두 함께 배우는 중국어 한마디 ①

올해 3월 양양~중국 간 3개 정기노선이 확정되면서 우리군은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금씩 중국어 내공을 쌓아두었다가 중국인 관광객을 만났을 때 미소와 함께 한 마디 건네볼까요?

1. 你好! nǐ hǎo! **니 하오!** \* 你 nǐ 당신, 너  
안녕하세요!
2. 你们好! nǐmen hǎo! **니먼 하오!** \* 你们 nǐmen 당신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3. 再见! zài jiàn! **자이 지엔!**  
잘 가세요.(안녕히 가세요)

你好!(니 하오)는 가장 일반적인 인사말로 아는 사람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 간에 쓰는 흔한 인사말이며, 你好吗? nǐhǎoma?(니하오마)는 아는 사람 간에 안부를 묻는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 고충민원 해결사 「이동신문고」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 「이동신문고」양양군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양군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이번에 속초시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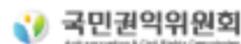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

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 <양양군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안내>

- 일 시 : 2016. 5. 19.(목) 10:00 ~ 16:00
- 장 소 : 속초시청 별관 5층 대회의실
- 분 야 : 전 행정분야(경찰 포함),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등
- 문 의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44)200-7321~3  
양양군 기획감사실, 읍·면사무소 (033)670-2112, 670-2104 / www.acrc.go.kr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4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근무지 주소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청곡정미소	양양읍 관덕정길 21	1명	곡물도정	07:00~18:00	월165만원
(주)에스디엠 엔씨	손양면 공항로 201 (양양국제공항)	1명	토목직	09:00~18:00 (주5일)	연2,600만원
동흥실업	강현면 물치천로 153	1명	재활용품 수거원	08:30~17:30 (주6일)	월170만원
태흥산업	양양읍 포월새마을길 23-112	1명	경리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130만원
한라산업개발 (주)	양양읍 퇴남이길 80 (양양군환경지원센터)	1명	소각로조직원	3교대	연2,285만원
		1명	대기환경기사	08:30~18:00	연3,050만원
투와이호텔	강현면 동해대로 3277-3	4명	프론트사무원	교대근무(주,아간)	연1,920만원
양양키토산	양양읍 포월새마을길 23-110	2명	생산직	08:00~17:00 (주6일)	월160만원
나노인스텍	양양읍 포월새마을길 23-64	1명	경리사무원	08:30~18:30 (주5일)	월140만원
		1명	영업직	08:30~18:30	연1,800만원
새한자동차 공업사	양양읍 남문1길 3	1명	보험출동기사	탄력근무	연2,000만원
대발통상	강현면 장산5길 15	3명	생산직	08:00~17:00 (주5일)	협의

###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4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 FAX. 033)670-2456

사업장명	근무지 주소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드림상사	강현면 물치천로	4명	현웃분류직업원	09:00~18:00	월급130만원
일송영농조합	양양읍 포월새마을길 포월농공단지내	2명	장아찌 포장생산원	09:00~18:00	일급 5만원
(주)해송KNS	양양읍 포월새마을길 23-106	2명	건버섯 이물질제거 및 소포장 직원	09:00~18:00	일급 5만원
오색그린아드호텔	서면 대청봉길	1명	룸메이드	09:00~18:00	월급150만원
낙산요양원	강현면 고래골길 109	1명	주방조리원	09:00~18:00 04:00~13:00	월급146만원
뱅크정보	양양읍 양양로 83-3	1명	경리사무원	13:00~18:00	시급6,030원
침따오양꼬치	양양읍 양양로	1명	주방보조원	18:00~23:00	월급120만원
뜰	양양읍 동해대로	1명	서빙 및 주방조리원	10:30~21:30	월급160만원
대왕갈비	현북면 하조대 1길 134-20	1명	출서빙	10:00~22:00	월급170만원
코리아데이터 네트워크	각 지역별 버스터미널	0명	여객시설물 통행실태조사 조사원	1일 8시간	일급 6만원
현산소규모요양원	양양읍 서문4길 316-1	1명	재가지원 사회복지사	09:00~18:00	월급150만원
낙산사	강현면 낙산사로 100	1명	청소원	08:00~18:00	월급165만원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6년 4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제4회 바다식목일

2016. 5. 10.(화) 14:00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바다에 심는 생명,  
바다가 품는 미래

주최 해양수산부 주관 FIRA 한국수산업자협회

후원 강원도 양양군